흔들리는 인하 기대감과 다가오는 엔비디아 실적

Market 황산해 _ sh.hwang@ls-sec.co.kr
RA 고세은 _ kose@ls-sec.co.kr

흔들리는 인하 기대와 지속되는 기술주 부진

미 증시는 DOW -1.18%, S&P 500 -0.92%, NASDAQ -0.84%, Russell -1.96%로 하락. 12 월 인하에 대한 기대가 연준위원들의 엇갈린 발언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 출연. 다만 연준의 갈등 양상의 핵심 논제가 관세보다 고용 시장 부담에 포커스 맞춰지며 인하 시에도 선제적 인하가 아닌 경기 우려로 이어질 구도 형성. 신용카드사 대출 부실 우려도 경기 상황 부담으로 연결. 이에 러셀, 다우 등 경기 관련 업종도 동반 하락

11 개 섹터 중 컴스(+1.1%), 유틸리티(+0.8%)를 제외한 9 개 섹터 하락 마감. 금융(-1.9%), 에너지(-1.9%), 소재(-1.5%), IT(-1.4%) 등이 가장 언더퍼폼. 알파벳(+3.1%)은 버크셔해서웨이의 지분확보 소식으로 기타 기술주 부진과의 디커플링. 금융 업종은 아메리칸익스프레스(-4.4%)의 연체율 및 상각률 우려가 지역은행단으로 확산되며 부진

미 국채 금리는 2Y 3.61%(+0.4bp), 10Y 4.14%(-1.0bp)로 혼조. 연준위원들의 갈등은 금리의 하방 경직성 부여했으나 주식시장 부진에 따른 채권 수요 증가와 경기에 대한 우려 부각되며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 유가는 WTI 기준 -0.63% 하락한 $59.7 기록하며 흑해 항구 원유 수출 재개 영향으로 하락

제퍼슨 부의장과 월러 이사

연준위원들의 12 월 인하에 대한 전망 엇갈리는 가운데 금일 연설이 있었던 제퍼슨 부의장과 월러 이사의 입장 차이도 확인. CME FedWatch 상 12 월 동결 확률은 전일 55%에서 57%로 상승. 제퍼슨 부의장은 현재의 정책기조는 다소 제약적이나 중립 수준에 더 가까움을 강조했으며 중립 금리에 접근함에 따라 속도조절이 필요함을 언급. 다만 고용에 대한 하방 리스크는 증가한 반면 인플레의 상방 리스크는 낮아졌기에 인하 사이클 지속에 대한 의견은 유지

월러 이사는 소비와 고용에 대한 불안을 언급하며 12 월 인하 재차 주장. 노동시장은 정체되어 있으며 소비의 경우 주식시장이 고소득층을 지탱하고 있으나 중산층 이하의 수요 둔화가 확인되고 있음을 언급. 더해 현 노동시장은 공급 감소보다 수요 감소가 더 큰 요인이기에 선제적 12 월 인하가 필요하다 주장

엔비디아 실적발표 임박, 강력하지만 둔화된 성장

현지기준 19 일 장마감후 예정된 엔비디아(-1.9%) 실적발표. 50%YoY 에 가까운 매출과 EPS 성장이 예고. 지난 GTC2025 행사에서 5 천억달러 규모의 대기 주문(25~26 년)을 언급했으며 앞선 빅테크 실적발표에서도 일제히 CAPEX 지출 상향이 포착되어 수요나 실적 쇼크에 대한 부담 적은 상황

다만 높아진 위스퍼 넘버 기대치, AI 투자 과열에 대한 부담, 대형 기술주 쏠림 부담으로 호실적 발표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보다 밸류체인 밑단의 키맞추기 가능성이 유력. 글로벌 IB 들도 최근 AI 슈퍼사이클 가속화로 메모리 등 관련 인프라의 수요와 가격 상승을 주목. 다만 금일 DELL(-8.4%), HPE(-7.0%) 등 하드웨어 기업들은 이러한 가격 상승의 피해주로 꼽히며 급락. 모건스탠리는 NAND, DRAM 등 하드웨어 필수 부품 가격이 AI 향 수요로 증가했으며 이는 곧 하드웨어 기업들의 마진 압박으로 이어짐을 강조

Global 주요 증시

주요국가	전일 종가 (pt)	장중 추이	수익률 (%)				
			1D	1W	MTD	1M	YTD
DOW	46,590.24		-1.18	-1.64	-2.04	0.87	9.51
S&P500	6,672.41		-0.92	-2.34	-2.45	0.13	13.44
NASDAQ	22,708.07		-0.84	-3.48	-4.29	0.12	17.59
Russell 2000	2,341.38		-1.96	-4.65	-5.57	-4.52	4.99
Stoxx 600	571.68		-0.54	-0.20	-0.04	0.96	12.62
영국(FTSE)	9,675.43		-0.24	-1.14	-0.43	3.43	18.38
상해종합	3,972.04		-0.46	-1.16	0.44	3.45	18.51
홍콩H	26,384.28		-0.71	-0.99	1.84	4.50	31.53
니케이225	50,323.91		-0.10	-1.15	-3.98	5.76	26.14
KOSPI	4,089.25		1.94	0.39	-0.44	9.08	70.42
KOSPI 200 선물	575.55		-0.81	*1D 수익률은 미국 증시 개폐장 시점 기준으로 측정하였습니다*			
KOSDAQ	902.67		0.53	1.61	0.25	5.02	33.10
인도(NIFTY)	26013.45		0.40	1.72	1.13	1.18	10.02

FICC

구분	전일 종가 (pt)	20D 추이 Daily	변동(bp, %)				
			1D	1W	MTD	1M	YTD
미국채 2년(%)	3.61		0.4bp	1.9bp	3.7bp	15.3bp	-63.2bp
미국채10년(%)	4.14		-1.0bp	2.3bp	6.1bp	13.0bp	-43.0bp
국고채3년(%)	2.91		-4.8bp	4.5bp	19.5bp	36.7bp	31.2bp
일본10년(%)	1.73		2.6bp	3.0bp	6.8bp	10.7bp	64.6bp
달러인덱스(pt)	99.54		0.24	-0.05	-0.27	1.12	-8.25
NDF 환율(1M)	1460.13		0.95	0.35	2.30	2.87	-1.07
유로/달러	1.16		-0.25	0.30	0.48	-0.54	11.96
위안/달러	7.11		0.12	-0.16	-0.17	-0.27	-2.62
엔/달러	155.26		0.46	0.72	0.82	3.09	-1.23
WTI(NYMEX)	59.71		-0.63	-0.70	-2.08	4.48	-12.44
천연가스	4.34		-4.95	0.05	5.24	16.01	-0.55
구리(LME)	10850.46		-1.45	0.52	-0.38	2.33	20.69
금(NYMEX)	4044.96		-0.96	-1.72	1.05	-4.87	54.12

특징주: 버크셔의 GOOGL 매입,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DELL 하락

알파벳: GOOGL — +3.1%, 버크셔의 지분 매입

버크셔의 13F 공시로 알파벳 지분 매입 확인되자 주가 급등. 세부적으로 알파벳 보유 지분은 $4.3B로 집계. 일련의 투자 방식은 버크셔의 기존 가치투자 방식과 다소 괴리된다는 시장의 견 존재. 번외로, **애플 지분은 상당폭 축소(Max 대비 3/4 매각 완료)된 상태**. 이에 AI 시장 내 애플의 경쟁력 열위 논란 재점화. YTD 기준 수익률로 비교했을 때, 알파벳은 +50.5% 달성한 반면 애플은 +9.7%에 불과. **그 외 BoA 지분 12분기 연속 매각, DR호튼 지분 매각. 반면 처브, 도미노 등은 보유지분 확대**된 것으로 확인

익스피디아: EXPE — -7.8%, 구글의 밀어내기

알파벳은 버크셔의 지분 매입과 함께, 구글 여행 검색 엔진 출시로 화제. **구글 사이트 내 AI 기반 여행 검색 엔진 서비스가 신규 출시. 이는 경쟁 플랫폼 익스피디아, 부킹홀딩스(-4.8%) 등 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 번외로 트립닷컴(-1.6%, +0%대 상승)은 장 마감 후 컨센 상회한 실적발표에도, 구글 서비스 개시로 센티 개선 제한적. CEO는 강력한 마케팅 전략이 성장으로 이어졌음을 언급. 각종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경쟁 심화가 본격화되지 않았음을 주장

델: DELL — -8.4%, 메모리 슈퍼사이클 타격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의견 하향으로 주가 급락. Morgan Stanley는 투자의견 매수→매도, TP $144→$110로 하향 조정. 핵심 근거는 지난 6개월 내 메모리 현물 가격이 50~300% 급등한 점. 일련의 상승세는 '26년까지 매 분기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는 주요 OEM 업체들의 마진 압박 요인으로 작용. 특히 델과 휴렛팩커드(-6.8%)는 DRAM 의존도 높은 점 감안했을 때, 리스크 노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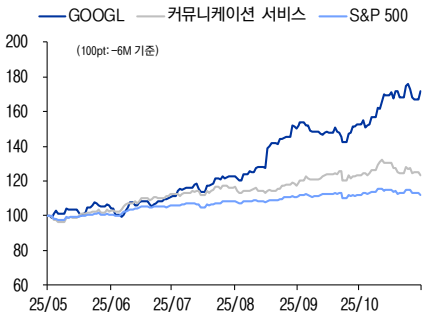
샤오펑: XPEV — -10.4%, EV 이익 부진

3FQ25 실적발표. 매출 $20.63B, EPS -$1.91로 컨센(매출 $10.10B, EPS -$0.56) 대비 매출 상회, EPS 하회. 성장률 자체는 긍정적. 매출이 전년비 +105%YoY 성장했기 때문. CEO는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 **다만 시장이 주목한 부분은 EV 업황 부진/경쟁 심화 속 수익성 유지 여부. 컨센 하회한 3FQ EPS와, 4FQ ASP 하락 가이던스가 주가 하락으로 직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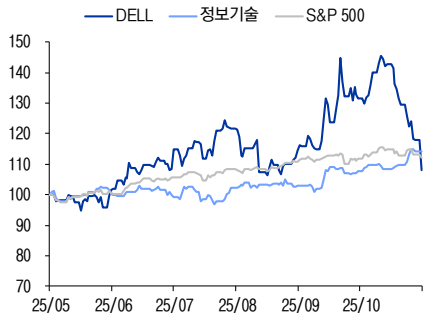
기타 코멘트 — NVDA(-1.9%), QUBT(+8.5%), COCO(+3.6%)

엔비디아(-1.9%)는 실적발표 앞두고 매도세 지속. 다만 주요 IB의 호실적 전망은 유지되는 양상으로, 실적기대감과 주가 간 괴리 발생. **퀀텀컴퓨팅(+8.5%)**은 전년비 매출 +280%YoY 폭증하며 주가 강세. 다만 동종기업 리제티컴퓨팅(-3.1%), D-웨이브(-3.2%) 등까지 온기 확산되지 않음. **비타코코(+3.6%)**는 CEO가 일부 식품(코코넛 워터 포함) 관세 철회에 따른 기대감 언급하며 주가 상승.

알파벳: GOOGL



델: DELL



● S&P500 섹터 수익률

순위	섹터 Top 세부업종	수익률(%) 1D	Bottom 세부업종	수익률(%) 1D
1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13		
	무선통신서비스	0.70	양방향 미디어/서비스	-0.66
2	유틸리티	0.84		
	전기 유틸리티	0.93	수도 유틸리티	0.12
3	건강관리	-0.06		
	생명공학	0.44	생명과학 도구/서비스	-1.33
4	부동산	-0.57		
	건강관리 리츠	1.14	부동산 관리/개발	-2.29
5	필수소비재	-0.59		
	음료	0.19	개인관리용품	-2.46
6	자유소비재	-0.80		
	자동차	0.73	가정용 내구재	-3.34
7	산업재	-1.03		
	상업서비스/공급품	-0.57	여객 항공사	-4.51
8	정보기술	-1.43		
	S/W	-1.01	IT서비스	-2.22
9	소재	-1.53		
	건축자재	-0.62	화학	-1.93
10	에너지	-1.88		
	석유/가스/소모연료	-1.83	에너지 장비/서비스	-2.47
11	금융	-1.93		
	보험	-0.97	소비자 금융	-4.52

● 종목 수익률 상하위 TOP 5 (%)

	UP	1D	DOWN	1D
1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4.2	델 테크놀로지스	-8.4
2	알파벳	3.1	익스피디아	-7.7
3	알파벳	3.1	제네락 홀딩스	-7.1
4	웨스턴 디지털	2.9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	-7.0
5	익스피다이터스	2.8	FMC	-6.8

● ETF 수익률 상하위 TOP 5 (%)

	UP	1D	DOWN	1D
1	WEAT	2.7	MSOS	-3.9
2	REMX	2.7	KRE	-3.8
3	BDRY	2.3	KBE	-3.6
4	SOYB	1.9	JETS	-3.5
5	BTAL	1.5	WCLD	-3.4

● ETF 거래량 상위 유니버스: 수익률 TOP 10

	Top ETF	추이	1D
1	UVIX		10.6
2	UVXY		8.0
3	SRTY		6.0
4	TZA		6.0
5	KOLD		5.9
6	FAZ		5.8
7	SOXS		5.4
8	SBIT		5.2
9	BTCZ		5.1
10	VIXY		5.1

● 테마 ETF 수익률 (%)

	테마	Ticker	1D	20D 추이
1	웰니스	INCO	0.6	
2	통신	IYZ	-0.5	
3	저탄소	LCTU	-1.0	
4	로봇&AI	AIQ	-1.3	
5	테마 전체	GINN	-1.3	
6	인프라	GRID	-1.4	
7	목재	WOOD	-1.4	
8	밀레니얼	MILN	-1.4	
9	물	PHO	-1.5	
10	비디오 게임&eSports	ESPO	-1.6	